

일본, 바이오 PET 시장 “개화”

Toyobo, 식물계 PET필름 생산 ... Teijin도 바이오 PET섬유 공급

Toyobo는 포장소재용 식물계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 필름 공급을 본격화하고 있다.

Toyobo가 개발한 바이오 PET필름은 바이오 EG(Ethylene Glycol)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식물계 원료 사용비율이 약 30%에 달하며 투명성, 인장강도, 신축성, 내충격성 등이 석유계 PET필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열수축 타입도 개발해 2010년 말부터 일반 포장용 및 공업용, 분말포장 등 다양한 용도로 샘플워크에 나서고 있다.

포장소재용은 Dainippon Printing과 공동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Dainippon Printing은 연포장이나 라미네이트튜브, 의료용, 산업자재 등 다양한 포장소재를 제조·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식품분야에서 높은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Toyobo는 친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식품기업들을 대상으로 바이오 PET필름을 공급해나갈 방침이다.

바이오 PET필름은 석유계 PET필름 설비에서 생산할 수 있어 상반기 중으로 양산을 개시해 본격적인 판매에 착수할 계획이다.

Toyobo 외에도 Teijin이 바이오 PET 섬유제품을 의류, 자동차 내장재, 위생소재용으로 공급하고 있어 앞으로 바이오PET 시장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여기에 코카콜라그룹이 바이오 PET병을 도입하는 등 세계적으로도 수요확대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참여기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화학저널 2011/06/08>